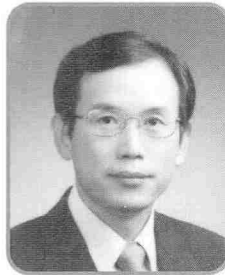


“산학 협력 활성화 노력 통해 광학기술 발전 도모해 나갈 터”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광학세계 독자 모든 분들께 건강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광학기협회 회원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광학산업 분야의 산업기술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신 광학기협회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들이 효율적으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학회의 새 홈페이지에 전문가 DB를 올리고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수, 학생, 연구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광학 제품 소개란도 만들었습니다. 광학회 회원의 기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중소기업청의 생산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나 한국부품소재진흥원의 종합기술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요청하실 수도 있고 광학회에 직접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적,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에 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어려움이 있지만 탁월한 능력과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같이 국내에 세계적 규모의 대기업이 있어서 관련된 광학 부품이나 광학기기의 생산이 파급 활성화 되는 분야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주문생산을 하던 기업이 자체적인 기술개발로 모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의 기술인력과 자금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광학기업의 사례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 광학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길을 찾아 성취하시길 빌며 한국광학회도 국내 광학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이 육성되면 관련된 부품이나 기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육성될 수 있으므로 부품업체, 모듈업체, 기기업체와 최종 수요자간의 상생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산업계 내에서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학계의 상생적 협력도 또한 중요합니다. 학계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산업계는 졸업생에 대한 취직자리와 연구과제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한국광학회는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한국광학회 회원 중에는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며 전

2007년 1월 1일
한국광학회 회장 이 인 원